



미국 주가와 한국 주가

안 기 만 · 매일경제TV 부국장, 증권부장

“미국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어떤 존재일까.”

과거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미국 논쟁이 자주 벌어지곤 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와 정치 문화가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과 대부분의 미국인은 한국에 대해 별반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항상 미국을 의식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냐”라는 자책감이 뜻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미국 추종 현상은 지금도 증권시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 국내에서도 주가가 오르고 미국의 주가가 내리면 국내 주가도 따라 내리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대표하는 다우 지수가 오르면 국내 증권거래소 주가도 오르고 나스닥 주가가 오르면 코스닥 시장이 따라 움직인다.

심지어는 나스닥 시장에서 정보통신주가 오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종목이 오르고 나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오르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거의 미국 추종 현상과 지금의 뉴욕주가 동조화가 다르다면 지금의 이같은 현상이 사대주의적 의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

다는 점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이같은 현상이 정치나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논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한국 증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오래전부터 굳어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세계 증시는 미국 증시 기상도의 맑고 갬에 따라 함께 웃고 우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린스펀 FRB의장의 금리인상 관련 발언 하나하나가 즉각 세계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미국의 증시가 세계의 돈을 흡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의 경우 IMF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에 몰려들며 따라 미국 주가 동조화 현상이 전보다 훨씬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미국 주가 움직임에 대한 한국 주가 동조화 정도를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코스피(KOSPI)지수와 미국 다우존스 지수간의 상관관계가 0.8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한국 주가도 0.82포인트 오른다는 뜻이다. 코스닥 지수는 이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도 최근

분석자료에서 98년 5월에서 99년 11월까지 미국 주가와 국내주가의 상관관계가 0.9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거의 미국 시장이나 국내시장이나 거의 같은 시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증권연구원은 거래소 종합주가지수가 S&P500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 다우존스지수이건 S&P500지수이건 간에 미국 주가와 국내 주가가 밀접하게 연동해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같은 미국 주가 동조화 현상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행태에도 큰 변화를 몰고왔다. 아침이면 주식시장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신문이나 방송사에 걸려온다. 인터넷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새벽부터 외신이나 증권정보 사이트를 뒤져 미국 주가를 체크한다. 심지어는 밤새워 미국의 경제뉴스 채널인 블룸버그TV나 CNBC를 지켜보며 미국증시 움직임을 연구하는 올빼미족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열성파들은 국내 증시가 열리면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맞춰 묻지마투자를 하기 일쑤다. 다시말해 간밤에 미국주가가 올랐다면 주저하지 않고 매입하고 미국 주가가 내렸다면 무조건 매도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에서 정보통신주가 올랐으면 비슷한 종목을 사고 미국에서 바이오테크 관련주가 내렸으면 그런 종목을 판다.

그런데 이같은 동조화에 따른 문제는 주가 하락기에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즉 미국의 주가가 올라 국내 주가도 따라 오를때엔 다들 좋아하고 희희낙낙 거리지만 미국의 주가가 계속 떨어져 덩달아 속락하게 되면 왜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 동조하여 같이 움직여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 장관까지 나서서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주가를 그대로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4월부터 증시 개장 1시간쯤 전에 밤에 열린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대신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시각 아침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8시에 언론기관 및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분석자료를 내보내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우리 증시가 미국의 금리 인상등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미국 증시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덩달아 움직이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증시에 대한 국내증시의 민감한 반응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좁혀지고 있고 특히 증권시장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연쇄고리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앞으로 24시간 거래체제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에는 이브닝 마켓 제도가 도입되어 저녁 일정시간동안 사이버 거래가 시행된다. 이 경우 보다 새로운 정보와 재료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서 투자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증시가 미국증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세계증시와 경제동향을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안기만부국장 : keyman21@hanmail.net〉